

인구 백만도시의 역사와 변화함을 즐긴다

仙台 센다이 에리어

다테마사무네가 축성한 지 400년. 관동이북지역 최대의 성하층으로 변성한 역사적 도시. 아오바산과 히로세강의 자연을 살리면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잘 정비된 「숲의 도시」이기도 하다. 맑은 공기에 둘러싸인 시내에서는 역사적인 장소를 비롯해 동서남북으로 길게 뻗은 쇼핑몰을 둘러보며 여유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다.



【仙台城跡(仙台市青葉区)】
센다이성터(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번주 다테마사무네에 의해 아오바산에 축성되었다. 혼마루터에서는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복원된 망루의 모습에서는 당시를 떠올릴 수 있다.

관광안내소 문의처

- 미치노쿠관광안내소(센다이공항내)
- 센다이시 관광정보센터(센다이역 구내2F)
- 센다이국제센터 교류코너

tel.022-383-6741
tel.022-222-4069
tel.022-265-2471



센다이 우미모리수족관(센다이시 미야기노쿠)

2015년 7월에 개관. 산리쿠의 바다를 테마로 한 대수조나 히로세강의 환경을 모티브로 한 전시, 돌고래강치의 퍼포먼스, 펭귄 등과 어울리는 체험과 같은 매력 가득. 1층 푸드 코트도 병설.



루플센다이(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역에서 15~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관광순환버스. 박물관이나 센다이성터 등, 시내중심부의 관광명소를 효율적으로 들 수 있다. ○1회 승차권/어른: 260엔, 12세 미만 어린이: 130엔(1일 승차권/어른: 620엔, 12세미만 어린이: 310엔)



조이호텐(센다이시 아오바쿠)

다테마사무네의 영묘로서, 1637년 2대 번주 다다무네에 의해 건립. 호화찬란한 모모야마양식의 영묘건축으로서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천후로 소실. 당시 모습 그대로 재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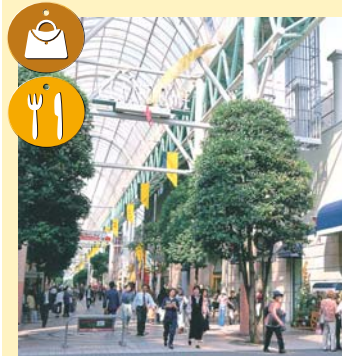
오사키하치만구(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번 시조 다테마사무네가, 센다이성의 북서 방향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잘 발달시키고 전해지고 있다. 호화찬란한 모모야마건축의 특색이 보이며, 다테가문의 위상을 현대에 전하는 귀중한 건축물. 매년 4월 14일의 마쓰타키제(토토축제는)는 많은 참배자로 북적이며, 무병식제,상업법성을 기원한다.



센다이시박물관(센다이시 아오바쿠)

다테가문으로부터 기증된 문화재를 비롯, 센다이에 관한 자료 약 9만점을 소장. 국보 「게조견곤 사찰관계자료, 및 중요문화재인 다테마사무네의 갑옷은 필히 관람추천(전시시간은 확인요망)」



부란돔 이치반초(센다이시 아오바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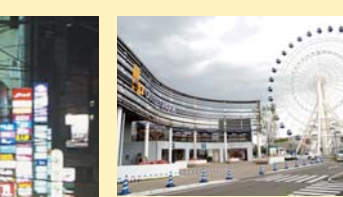
센다이역내 S-PAL(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역앞에서 이치반초, 조젠지도리부터 미나미마치도리에 이르는 스트리트는, 6개의 아케이드로 된 일대 쇼핑존, 또한, 역 주변에는 전자제품 양판점이 진출하여, 활기를 보이고 있다.



고쿠분초(센다이시 아오바쿠)

고쿠분초는 3000점포가 넘는 음식 점이 밀집한 도호쿠최대의 번화가. 음식점빌딩이 길 옆으로 들어서 있으며, 주말밤에는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미시이 아울렛파크 센다이항(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상점과, 레스토랑을 합해서 약 120점포가 집결한 도호쿠지방 최대의 아울렛.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푸드 코트와, 부지내에 높이 50m의 관람차도 설치. 가족 모두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쇼핑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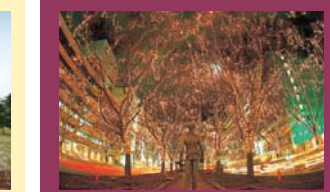
센다이 다나바타축제(센다이시 아오바쿠)

다테마사무네의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행사로, 도호쿠 3대축제의 하나로 손꼽힌다. 중심부 아케이드가를 비롯 3000개의 다나바타장식이 바람에 흔들리며 거리를 장식한다. 전야제인 다나바타불꽃축제도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매년 8월 6~8일에 개최.(전야제는 5일)



센다이프리미엄 아울렛(센다이시 이즈미쿠)

미국 동북부의 거리를 본뜬 건물로, 고급 브랜드나 잡화 점포 80개 이상이 입점해 있다. 입점해 있는 "이즈미 파크타운 타피오"와 합하면, 160점포가 갖춰진 쇼핑 명소.



센다이 하카리노 페스티벌(센다이시 아오바쿠)

12월 상순~31일에 17시 30분~23시(31일만~24시), 조젠지도리와 아오바도의 느티나무에 장식한 전구가 센다이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18시, 19시, 20시의 3회, 약 1분간 소등하여 일제히 재점등하는 스타라이트 워크, 산타크로스의 복장으로 퍼레이드하는 산타의 숲 이야기 등 이벤트로 가득.



아키우온천(센다이시 다이하쿠쿠)

나토리강의 계류와 주변의 산들이 사계절 마다 그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많은 볼거리가 있는 도호쿠지방 제일의 온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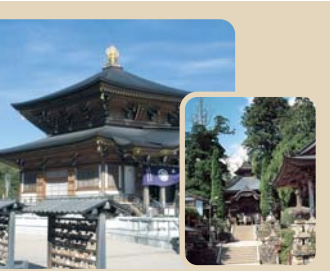
아키우공예의 마을(센다이시 다이하쿠쿠)

전통고케시인형, 센다이정종, 고목세공, 에도팽이 등, 전통공예 장인들의 공예품이 집결, 작품의 판매는 공예품판매를 겸한 가게에서 가능하며, 제작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것부터, 유류로 그림날기 체험할 수 있으므로, 꼭 즐겨야 할 것이다.



사쿠나미온천(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의 심볼-히로세강 상류에 있는 산간온천. 소박하고 고요한 온천정서를 느낄 수 있다.



고쿠리쿠산 사이호지(조기노라이)(센다이시 아오바쿠)

인연맺음 및 자녀복에 효험이 있는 고찰. "조기노라이"라는 여래불의 이름으로 친숙한 곳이다. 사찰 앞에는 많은 상점이 위치해 있다.